

# 서구청 김재원, 펜싱 에페 아시아 2위...파리올림픽 출전권

## 파리 올림픽 출전 멤버 확정 펜싱 3개 종목 단체전 출격

펜싱 남자 에페 김재원(서구청)이 파리 올림픽에 나선다. 대한펜싱협회는 16일 2024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를 확정했다. 한국은 3개 종목 남자 사브르, 여자 에페, 여자 사브르에서 파리 올림픽 단체전 출전권을 따냈다.

단체전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한 남자 에페에서는 개인 출전권을 얻은 김재원이 유일하게 파리로 향한다. 김재원은 아시아 랭킹에서 2위에 오르며 이번 올림픽의 개인 출전권을 따냈다.

서구청 강영미도 송세라(부산시청), 이혜인(강원도청), 최인정(계룡시청)과 함께 여자 에페 대표팀으로 올림픽에 나선다.

전남도청 최세민은 윤지수·전하영(서울시청), 전은혜(인천중구청)와 여자 사브르 대표팀으로 출전한다.

남녀 모두 단체전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한 플리레에서는 하태규(충남체육회)만 남자 개인전에 나선다.

이번년도에 서구청 펜싱팀에 입단한 김재원은 신장 173cm의 '왼손 검객'이다. 파리에서 맞붙게 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키가 작은 키다. 김재원은 그

의 민첩함으로 피지컬을 보완해 왔다.

김재원은 "체급으로 나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큰 체격이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 작으니까 민첩함으로 승부를 보는 편이다. 경기를 많이 뛰면서 경험을 쌓다 보니까 어떻게 흐름을 이끌어 갈지 감이 생겼다"며 "이제 보완할 점은 체력과 스피드를 더 끌어올리는 것이다. 기본체력뿐만 아니라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혀서 펜싱체력을 탄탄하게 다지려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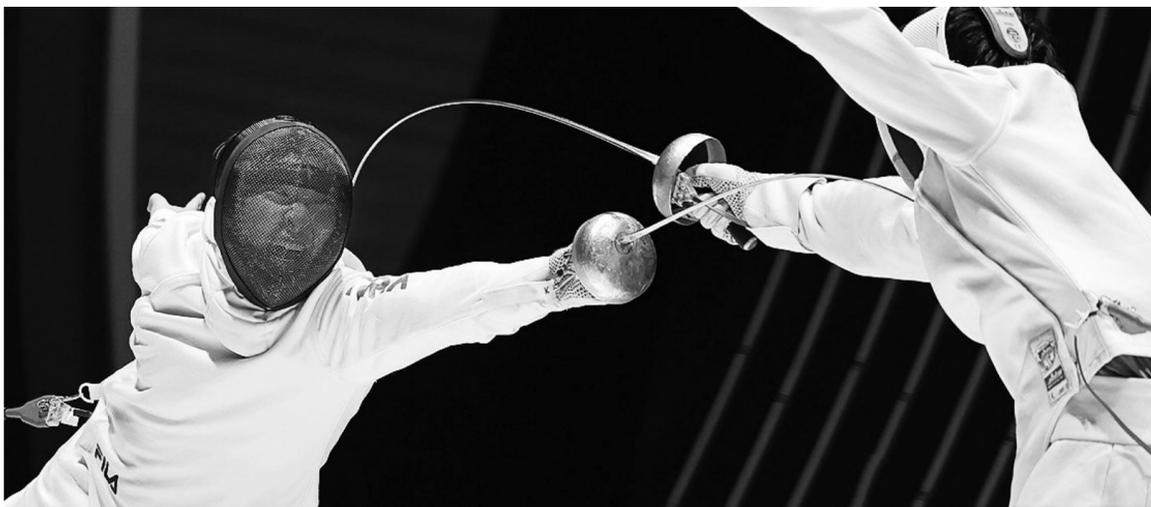
30여년간 서구청 펜싱팀을 지휘해 온 박광현 감독은 김재원의 장점을 스피드와 수비력으로 꼽았다.

그는 "재원이 수비력이 좋아서 초반에 승점을 갖고 가면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본다. 남자 경기는 워낙 경쟁력이 세다 보니까 지금부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청 펜싱팀은 김재원과 강영미 두 선수의 파리행을 확정하며 펜싱 강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박광현 감독은 "우리 팀에서 2명이나 파리 올림픽에 나가다 보니까 자부심도 생기고, 또 그에 따른 부담도 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 펜싱팀이야 늘 운동에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17일부터 열리는 생모르 국제펜싱협회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현재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김재원은 다가올 파리 올림픽 입상을 위해 끈기와 자신감



펜싱 남자 에페 김재원이 파리 올림픽에 나선다. 사진은 김재원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펜싱 남자 에페 개인 16강 경기에서 한국 김재원이 우즈베키스탄 파이즐라를 상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김재원은 "펜싱은 지구력이 필요한 종목 같다. 선블리 급하게 하면 오히려 당하는 게 많다.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게 중요하다. 특히 어려운 상대와 붙게 됐을 때 소극적이게 되지

쉬운데, 위축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의 큰 목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수'가 되는 것. 그는 "단체전을 아쉽게 못 따서 개인전을 혼자 뛰는 만큼 부담감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파리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다"며 올림픽 출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파리 올림픽 펜싱 경기는 7월 27일(현지시간)부터 8월 5일까지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2023 '슈퍼6000' 스타트 모습. <슈퍼페이스 제공>

##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영암 서킷서 레이싱

### 19일 슈퍼레이스·래디컬 컵·트로페오 함께 열려...100여 대 참가

전남도가 지원하고 ㈜슈퍼페이스가 주최하는 '2024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오는 19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100여대가 참가하는 가운데 국제대회로 치러진다.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은 지난 2014년부터 아시아권 문화 교류 및 국내 모터스포츠 세계화를 위해 ㈜슈퍼페이스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래디컬 컵 아시아', '코리아 트로페오'가 함께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동차 경주대회의 스피드와 박진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 확대와 피트 스톱(Pit-Stop)을 적용했다. 가성의 달을 맞아 메인 관람석에 마련된 이벤트 존에서는 가족단위 관

람객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국내 최고 등급인 '슈퍼6000'은 436마력 6200cc 엔진을 탑재한 아시아 유일 스톱카 종목이다. 올해 9라운드 중 유일하게 피트 스톱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행 거리도 100km에서 160km로 60km를 늘렸다.

70분의 주행시간 동안 레이스 상황에 맞춰 한 차례 이상 급유 또는 타이어교체를 해야 되는 특별 규정으로 이번 라운드 우승자는 최대 5점 이상 포인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치밀한 전략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래디컬 컵 아시아는 세 종류의 경주용 전용차량이 참가하는 종목이다. 배기량이 가장 높은 SR10은 425마력 2300cc 엔진에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

이 725kg으로 가벼워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100km/h 도달 시간)이 2.4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코리아 트로페오는 모터사이클 종목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400cc 미만급 25대가 참가하며 10바퀴를 빠르게 주행한 순서로 순위가 결정된다.

또 관람객이 참가 선수 및 차량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리드 워크'와 함께 서킷택시, 서킷 버스투어, 경품 이벤트, 버블쇼, 가상레이싱 등 모터스포츠를 주제로 가족이 함께 즐기는 차별화된 행사가 준비됐다.

이상용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모터스포츠 이벤트로 성장할길 바란다"며 "전남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서 국제자동차경주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2년 연속 왕좌 도전' 신진서, 바둑 LG배 출전

### 변상일·박정환 9단 등 13명 출전

세계 최강 프로기사 신진서(사진)가 또 하나의 이정표에 도전한다.

신진서는 오는 2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시작하는 제29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에서 대회 최초 2연패와 통산 4회 우승을 노린다.

삼성화재배와 더불어 한국이 주최하는 메이저 세계기전인 LG배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의 최정상급 기사 24명이 출전에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린다.

한국은 지난 대회 우승·준우승자인 신진서·변상일 9단을 비롯해 박정환·신민준·박건호·원성진 9단(이상 국가시드), 김명훈·강동윤·이창석·이지현 9단, 김진휘 7단, 한상조 6단, 최현재 5단(이상 선발전)까지 총 13명이 출전한다.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은 당하오·셰얼하오 9단(이상 국가시드), 케제·구쯔하오·판팅위·미위팅 9단(이상 선발전) 6명이 참가한다.

일본은 사바노 도라마루·이다 아쓰시 9단(이상 국가시드), 쉬지위안 9단(선발전) 3명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대만은 쉬하오홍 9단(와일드카드)과 라이쭈푸 8단(국가시드) 2명이 출사표를 올렸다.

이번 대회 최대 관심은 '디펜딩 챔피언'인 신진서가 LG배 최초로 2연패를 달성할지 여부다.

LG배는 지난 28회 대회까지 이창호(1·3·5·8회), 이세돌(7·12회), 구리(10·13회) 등 총 21명의 우승자가 탄생했으나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없었다.

신진서 역시 LG배에서 24·26·28회를 제패하며 징검다리 우승을 차지했으나 2년 연속 왕좌에 오르는 못했다.

그동안 LG배에서 국가별로는 한국이 13회로 최다 우승을 차지했고 중국이 12회, 일본 2회, 대만 1회 정상에 올랐다.

이번 LG배는 20일 24강전을 벌인 뒤 22일 16강전을 치른다.

신진서·변상일·박정환·신민준·케제·미위팅·당하오·사바노 도라마루 8명은 1회전 부전 시드를 받아 16강부터 출전한다.

8강~4강전은 9월 하순 열리고 결승 3번기는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다.

LG배 우승 상금은 3억원, 준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제한 시간은 각자 3시간에 초읽기 40초 5회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5월

2024년 5월 17.00

**2024년 광주상설공연(5월)**  
 일시 : 2024-05-04(토) ~ 2024-05-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 「DIVINE」**  
 일시 : 2024-05-24(금) ~ 2024-05-25(토)  
 05.24.(금) 19:30  
 05.25.(토) 15:00,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